

# 도시 공원 설계의 새로운 전략\*

-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 우승작 <트리시티>를 중심으로 -

배정한

단국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I. 도시의 변화와 공원의 위기

“공원은 여전히 필요한가?”(Ophuis, 1997) 조경가들의 지혜로운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반성적 질문이다. 도시의 해악과 노동에 지친 삶을 그림같은 녹색 자연 속에서 치유한다는 이념에서 출발했던 도시 공원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도시에 대해 배타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도시 속의 녹색 섬이기를 지향했던 공원이지만 결국은 도시를 기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역설에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다. 현대 도시는 마치 생명체처럼 진화해 온 데 반해, 도시의 켈레이자 반도시의 피난처인 공원은 150년 전의 모습 그대로 픽취레스크의 낭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도시의 여러 조건과 문화적 상황을 잣대로 삼는다면, 도시의 공간과 일상적 삶에 역동적으로 침투하지 못하는 목가적 공원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폐물이라는 극단적 평가마저 설득력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수평적 확산에 따른 교외(suburban)의 광범위한 개발은 공원이 내걸어 온 전원의 이념과 형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보편적 주거지와 공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의 대중화와 교통망의 다각적 발달을 만끽하는 “이동하는 도시인”(Geuze, 2000)은 공원보다 더 먼 곳의 자연을 짧은 시간 안에 경험한다. 도시 공원의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관광 산업의 폭발적 발전은 레크리에이션 문화의 혁명을 가져왔다. 관광 상품의 매력을 경험한 도시인은 새벽의 체조 모임이나 저녁 식사 후의 산책 그 이상을 공원에서 기대하지 않는다. 또한 소비와 휴식과 오락을 일체화시킨 자본주의의 상징 대형 쇼퍼몰도 공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녹색으로 포장된 공원이 소비의 향연장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진부한 논리는 더 이상 효

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배정한, 2001b). 이처럼 급격히 변화해 온 도시 공간과 문화의 다양한 국면을 염두에 둔다면, 조경가에게 던져진 다음과 같은 난제에서 우리는 위기를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원은 과연 필요한가?”

공원의 위기에 대한 대안적 해법은 이미 파리를 중심으로 활발히 실험되었고(Baljon, 1997), 이후 많은 파급 효과를 낳았다. 특히 1980년대 초의 라빌레뜨파크(Parc de la Villette) 설계경기는 현대 조경사는 물론 도시문화사의 새로운 한 장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비단 베르나르 츄미(Bernard Tschumi)의 당선작이 선보인 실험적 조경 철학이나 새로운 조형 언어 때문만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옴스테드 브랜드의 전통을 반성하고 도시 공원의 동시대적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조경진, 1998)가 라빌레뜨파크와 이에 대한 비평 작업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반도시를 지향하는 완결된 구조의 고립된 공원을 탈피해 도시와 대화하고 도시 문화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의 변화 가능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원의 모델을 탐색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라빌레뜨의 정신보다는 겉모습만을 복제하는데 치중하는 또 하나의 유행이 파도를 탄다. 라빌레뜨의 우산 속에서 진행된 20세기말의 조경 설계는 공원의 겉모습만을 갈아 입히는 형태중심적 실험에 골몰한 혐의가 짙다고 말해도 과장된 논리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의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국제설계경기의 성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원의 형태보다는 그 내용과 기능의 새로운 설정에 지향점을 둔 다운스뷰파크를 통해 우리는 도시와 공원이 맺는 관계의 대안적 좌표를 모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21세기의 조경 설계가 그러나갈 지

\* 이 논문은 필자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Graduate School of Fine Art'd 조경학과에서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8월 31일까지 ‘현대조경설계: 그 이론과 실천미학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수행한 박사후(Post-Doc.) 연구의 일부이다.

형을 예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II.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의 의의

비평가들은 다운스뷰파크가 센트럴파크와 라벨레뜨파크에 이어 공원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주최측이 내건 설계경기의 공식적인 목적에서 이미 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 “부지의 사회적·자연적 역사에 합당한 ‘혁신적’ 디자인 안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생태계를 지원하고 증가하는 공공의 이용과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관’ 모델 또한 제시할 수 있는 실험적 디자인이 참여자에게 요청된 필요조건인 것이다.

토론토의 다운스뷰파크 부지는 1940년대 이래로 캐나다 공군 기지가 자리잡고 있던 320에이커의 큰 땅덩어리이다. 기지가 들어설 무렵에는 토론토의 변두리였지만 현재는 도시의 중심부가 되었으며, 1994년에 기지가 폐쇄되었다. 1996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기 시작한 이 부지는 1999년 캐나다 최초의 국립도시공원을 목표로 국제설계경기에 부처졌다. 22개국의 179개 팀이 간략한 설계 제안서를 제출했고(1999년 10월 6일), 그중 5개 팀이 1차로 선정되었다(1999년 11월 26일). 이 다섯 팀은 각각 10만 불을 미리 지원 받고 최종 결선을 벌였는데, 다섯 명으로 구성된 결선 심사위원회는 2000년 5월말 렘 쿨하스(Rem Koolhaas)/OMA + 브루스 마우 디자인(Bruce Mau Design) + 올레슨 워랜드(Oleson Worland Architect) + 인사이드/아웃사이드(Inside/Outside) 팀의 작품 <트리씨티 Tree City>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다운스뷰파크는 향후 15년간 총 1억 4천 5백만 불의 예산이 투입되어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다섯 팀의 최종 결선 작품은 2000년 11월 뉴욕의 밴알렌 인스티튜트(Van Alen Institute)에서 전시됨으로써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유수의 건축, 도시, 조경 관련 저널들이 앞다투어 다운스뷰파크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중이다(Berger, 2001 ; Brown, 2000 ; Kapelos, 2000 ; Waldheim, 2001 ; 배정환, 2001a). 특히 변화하는 조경의 지형을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독해하고자 하는 이론적·비평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승작 <트리씨티>는 “인공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 도시와 황야, 개별과 집단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동시대적 표현이며, 조경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있다.”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이었던 티렌스 라일리의 평이다. 그러나 당선작뿐만 아니라 다른 결선 경쟁작 모두가 경관과 건축, 설계와 계획간의 전통적인 이분법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폐기하고 도시의 일상에 개입할 수 있는 공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축과 조경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III. < 트리씨티 >의 전략과 그 의미

### 1. 전략 디자인

“이게 과연 조경 설계인가?” <트리씨티>를 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이다. 신문의 전면 광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 같기도 한 렘 쿨하스(Rem Koolhaas)와 브루스 마우(Bruce Mau) 팀의 <트리씨티>는 형태를 디자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전략”을 디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브루스 마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안은 결과물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알고리즘이나 벡터를 디자인하는 것에 가깝다. 벡터를 결정하는 경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진화하는 프로세스를 일련의 연관된 점들에 결합시킨다. 당신은 그러한 결합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조직할 수 있다. 이것은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레서피이다”(Brown, 2000). 완결된 형태 위주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기보다는 공원 자체의 진화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는 일에 디자인의 초점을 둔 것이다.

실제로 구체적인 공원의 형태나 시설물의 외관은 전혀 디자인되지 않았다. 다만 아홉 장의 전시 패널과 모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원이 <트리씨티>의 전략을 전달하는 형태적 매개체가 되고 있다. 마치 상품의 로고나 브랜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원은 쿨하스와 마우가 다운스뷰파크의 주제로 설정한 “나무”와 연결된다. <트리씨티>에서 나무는 도시의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도시화의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 <트리씨티>가 단지 나무가 풍성히 많은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형 나무 군락의 매트릭스로 구성되는 다운스뷰파크를 토론토의 여타 녹지와 연결시킴으로써 도시

전반의 시스템을 새롭게 짚는 전략은 “공원의 안과 밖 경계를 흐릿하게 함”으로써 공원을 도시로 확장시키는 동시에 공원으로 밀려들어오는 도시의 힘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전략과 결합된다.

또한 쿨하스와 마우는 공원의 장기적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3단계의 시간별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공원 조성의 재정 확보 방안과 긴밀히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다른 결선작들 - 특히 제임스 코너와 스탠 알렌의 <Emergent Ecologies> - 에 비해 세부 디자인을 간과하고 국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약점(Berger, 2001 ; Waldheim, 2001)에도 불구하고 <트리씨티>에게 다운스뷰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2. 도시 = 공원 : 여섯 가지 전략

<트리씨티>는 도시와 공원의 경계를 파기하고, 공원을 통한 도시의 성장, 즉 도시가 곧 공원이고 공원이 곧 도시라는 전략을 디자인하고 있다. 램 쿨하스와 브루스 마우의 이러한 전략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1) 공원 성장시키기(grow the park) : <트리씨티>는 공원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씨를 뿌린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트리씨티>는 다운스뷰파크를 그 경계를 넘어 도시의 영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트리씨티>는 도시와 공원 사이에 이원론적 관계를 설정해 온 전통적 공원과 대조적이다. 부지의 토양을 개선하는 1단계(2001-2005)와 소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2단계(2006-2010)를 거쳐 성장할 공원은, 3단계(2011-2015)에 이르면 전체 면적의 25%에 원형 나무 군락의 매트리스를 확보하게 되며 나머지 면적은 초지, 운동장, 정원으로 보강된다. 이러한 단계적 진화 과정을 통해 토지의 경제적 가치 또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2) 자연 제조하기(manufacture nature) : <트리씨티>는 부지를 원시의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대신 도시와의 소통을 위해 자연을 제조한다. 즉 <트리씨티>의 자연은 공원 내의 여가 활동, 이동, 상업적 발전을 결집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가공의 경관이다. 램 쿨하스의

말처럼 “100% ‘인공적’ 이자 100% ‘자연적’ 인” <트리씨티>는 자연과 문화를 양분하는 전통적 공원 개념의 허구를 폭로하고 오히려 “제조된 자연”을 전면으로 당당히 내세움으로써 “문화적 자연”의 이념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다.

3) 1000개의 소로(1000 pathways) : 무한한 경우의 수의 산책과 소풍 경로를 제공하게 될 1000개의 소로는 공원 전체를 그물처럼 서로 엮으며 관통하는 트레일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소로는 다운스뷰파크의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층위의 경험을 선물해 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1000개의 소로가 1000개의 공원 출입구로 연결된다는 아이디어이다. 이는 공원을 도시와 연결시켜 주는 직접적인 물리적 장치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즉 <트리씨티>는 다운스뷰파크를 도시의 주변부에 담을 싹고 기생하는 피난처 공원이 아니라 도시 공간과 문화의 중심에서 일상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는 공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전략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4) 희생과 구원(sacrifice and save) : <트리씨티>는 선성장 후건설(grow now and build later)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건축물의 건설을 희생시켜 경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원한다는 것이다. 즉 공원 내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절감하여 공원 전반의 기저가 되는 경관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경제적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경관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을 통해 증가될 토지 가치의 경제성을 장기적인 공원 건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주목할 만하다.

5) 문화 돌보기(curate culture) : <트리씨티>는 또한 공원의 역동적 기능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인된 일종의 다이어그램이기도 하다. 특히 임시적인 성격을 지니는 문화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형태보다는 다이어그램의 형식을 취한 전략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진화될 수 있다. 공원의 성장 전 과정에 걸쳐서 장차 다양한 문화 기능이 새롭게 추가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공원의 여가적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원의 생명력을 보장해 줄 것이며 점차 증가될 관리 비용을 상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 목적지와 분산(destination and dispersal) : <트리씨티>는 도시 내 여가의 목적인 동시에 도시의 진입로라는 기능도 담당한다. 또한 도시의 주요 도로가 공원으로 인해 단절되지 않도록 공원과 도시의 조적을 엮는 장치를 마련하고 도시의 교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공원에 침투시킴으로써 각종 교통과 수송의 중추 역할을 공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 역시 도시와 공원 사이의 이분법적 벽을 허물고 도시가 곧 공원이고 공원이 곧 도시라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IV. 다운스뷰파크의 교훈

21세기의 서막을 연 다운스뷰파크 설계경기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트리씨티>의 브랜드를 단 다운스뷰파크는 완공 시점인 2015년까지 계속 진화할 것이며, 그 여파에 비평의 시각을 투입하는 일은 21세기의 조경 설계에 던져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와 <트리씨티>의 전략으로부터 동시대 조경 설계의 변화하는 지형을 진단할 수 있는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배정환, 2001a).

첫째, 다운스뷰파크 프로젝트는 도시 공원의 역할 변동을 예증해 준다. 회색 도시의 콘크리트 숲 속에서 잠시나마 전원의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19세기적 공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공원은 도시의 부정적인 면을 완화시켜주는 주변 부적 공간 요소가 아니라 변화하는 도시의 공간·문화 구조와 함께 호흡하며 상호 개입할 수 있는 역동적인 장소로 변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 곧 공원이고 공원이 곧 도시라는 다운스뷰파크의 선언에서 우리는 도시 공원의 미래상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변신 프로젝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광범위한 패러다임 전이에 주목해야 한다. 서구 근대의 소산인 자연-문화 이원론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은 조경 행위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이념적 장치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다. 그러나 그러할 때의 자연은 인간의 삶과 문화로부터 동떨어진 신비의 영역이었고 조경은 녹색 자연의 신화를 공고히 구축하는데 복무해 왔다.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신비적 자연의 이미지를 교정해야 할 숙제가 조경 설계에 부과되었다.

우승작 <트리씨티>는 나무가 많아 그림처럼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다. '나무'와 '도시'가 은유하는 것은 분리된 구도의 자연과 문화가 아니라 문화적 자연의 구축에 참여하는 구성 성분으로서의 자연과 문화이다. 공원은 자연과 문화의 역동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조경 설계의 방법 또는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트리씨티>를 비롯한 결선 경쟁작 다섯 작품은 조사·분석·설계의 과정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생산하는 전통적인 설계 방법을 지양하고 프로그램과 프로세스 위주의 열린(open-ended)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자극적인 형태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골몰해 왔던 최근의 경향에 조종을 울리고 있다. 또한 고정된 시점의 완결된 형태를 제시하는 설계보다는 부지의 맥락을 존중하고 시간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전략 설계가 보다 현실적일 수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넷째,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조경 설계의 중요한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운스뷰파크 부지가 캐나다 공군의 토론토 기지였듯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산업 구조의 재편에 따른 공간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항구, 공항, 도로, 교량, 공장 등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버려진 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 대한 리노베이션 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피터 라츠(Peter Latz)의 엠셔파크(IBA Emscher Landscape Park)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 공장 이전 부지(post-industrial sites)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 실험실이 되고 있으며 조경 설계의 전략적·대안적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역의 붕괴와 탈장르화가 함의하는 바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운스뷰파크 결선 출품작 모두에서 드러나듯 건축과 조경의 전통적인 경계는 이미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20세기 건축과 조경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원 속의 기계"(machine in the garden)라는 메타포가 침몰되고 있는 것이다. 경계의 파기와 영역의 혼성은 조정적 건축으로 또는 건축적 조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인위적 구분의 부조리함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다. 그것은 곧 자연과 문화의 접점에서 진정한 조경 행위를 탐색하고자 하는 실험이기도 하다.

- 주 1. 보다 상세한 지침 및 기타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정보는 주최측의 공식 홈페이지인 <http://www.parcdownsviewpark.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주 2. 당선작 외에 결선에 오른 나머지 네 작품과 출품팀은 다음과 같다. ① Emergent Landscapes : Brown and Storey Architects. ② Emergent Ecologies : James Corner/Field Operations + Stan Allen Architect. ③ A New Synthetic Landscape : Foreign Office Architects + Kuwabara Payne McKenna Blumberg Architects + Tom Leader and James Haig Streeter of Peter Walker and Partners Landscape Architects. ④ The Digital and the Coyote : Bernard Tschumi Architects + Dereck Revington Studio + Sterling Finlayson Architects
- 주 3. Kurt W. Forster(심사위원장, 캐나다 건축협회 회장), Ydessa Hendeles(이데사 헬덴스 미술재단), Cornelia Hahn Oberlander(조경가), Terence Riley(뉴욕 현대미술관 수석큐레이터), Gerald Sheff(Gluskin Sheff & Associates).
- 주 4. <트리씨티>의 의도와 전략은 렘 쿨하스와 함께 팀을 주도한 브루스 마우의 최근 저서 Life Style에 잘 정리되어 있다(Mau, 2000). <트리씨티>뿐만 아니라 나머지 결선작의 작품 사진, 텍스트 작가 인터뷰, 관련 비평 등은 조경비평 웹진 [www.juncus.com](http://www.juncus.com)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 인용문헌

1. 배정환 (2001a) 조경설계의 새로운 지형 :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의 몇가지 풍경. 환경과 조경 153 : 68-75.
2. 배정환 (2001b) 동시대 조경 이론과 설계의 지형(5) : 변신을 꿈꾸는 공원. 환경과 조경 159 : 82-87.
3. 조경진 (1998) 라빌레뜨공원에 관하여 알고 싶은 두 세가지 것들. Locus 1 : 35-50.
4. Baljon, L. (1997) Paris as a Laboratory for the Park of the 21st Century? Topos 19 : 75-82.
5. Berger, A. (2001) Learning from Downsview. Landscape Architecture 91(3) : 131-132.
6. Brown, B. (2000) Designing Downsview Park. Van Alen Report 8 : 6-15.
7. Geuze, A. (2000) Accelerating Darwin. in H. Ibelings ed., The Artificial Landscape : Contemporary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Netherlands. Rotterdam : NAI Publishers.
8. Kapelos, G. (2000) Less is More : Rem Koolhaas' Manifesto Wins at Downsview. Competitions 18(3) : 28-43.
9. Mau, B. (2000) Tree City : Proposal for Downsview Park. Tronto, 2000. in Life Style. London : Phaidon Press, pp.384-411.
10. Ophuis, H. (1997) Do We Still Need Parks? Topos 19 : 90-95.
11. Waldheim, C. (2001) Park=City? : The Downsview Park Design Competition. Landscape Architecture 91(3) : 81-85, 98-100.
12. Weller, R. (2001) Toward an Art of Infrastructure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The Keynote Address delivered at the MESH Conference at RMIT, Melbourne, Australia, July 9.
13. <http://www.juncus.com>
14. <http://www.parcdownsviewpark.ca>